

## 고린도전서 6장

여러분의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6장을 펴십시오. 첫 구절에 바울이 질문하기를,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여기서 “다른 이”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형제를 말합니다. 바울이 6절에서,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고소하러 가며”라고 말한 것같이, 만약 너의 형제(다른 이)와 문제가 있으면)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헬라 사회는 소송하기를 매우 좋아하는 사회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들의 전 생애 동안 여러 번 법정 문제에 관련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소송을 제기할 준비가 되어있었습니다. 당신이 고소를 당했을 때, 먼저 그 사건을 들어줄 양방의 중재인이 정해지고 또한 제 삼 중재인이 개입하여 타협적인 해결을 보도록 중재하게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여도 해결이 안 되면, 다시 이번에는 배심원이 있는 법정으로 가야합니다. 그들은 배심원이 100명이 넘는 대단히 큰 규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어떻게 문제의 해결점에 이르고 또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근래에 와서 법적 제도의 면모가 확실히 드러난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배심원 제도도 한 배심원은 한 사람을 무죄라고 선언하고, 다른 배심원은 그를 유죄라고 선언하면서, 두 배심원이 거의 만장일치로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 상당히 이상하게 보입니다. 이것은 곧 세상 제도가 최고의 상태에서도 불완전함을 지적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다른 형제와의 문제를 불신자들의 법원에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 꾸짖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교회 안에서 형제사이에 있는 이런 문제들은 불신자들의 법정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결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 질문하기를, **2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재림 때, 주께서 심판대에 앉으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천년간 통치하실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데 동참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한 것은 아마도 이것을 말한 것일 겁니다.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땅을 통치할 때에 우리가 세상의 문제들을 다룰 터인데, 때때로 교회 안에서 형제 사이에 일어나는 이런 몇몇 조그마한 문제들도 해결할 수 없단 말인가?

그런 다음에 바울은 말하기를, **3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우리가 어떤 천사를 심판할 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주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가 좋은 천사를 심판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우리의 수호천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의아해 하기도 합니다. 수호천사가 직무 나태로 어디에선가 잠을 자거나 태만해 있는게 아닌가 하고 질문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아마도 타락한 천사를 말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천사를 심판하는 위치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영적인 일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심판할 때에는 국제적인 문제들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작은 일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때는 영적인 문제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서 삼을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를 법정에 데리고 가는 대신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우리가 영적인 일들을 판단할 것이라면, 얼마나 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문제들과,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차이점들을 판단하고 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4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여기서 바울은,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판단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히 여김을 받는다는 자들을, 다른 말로 하자면, 실제로 교회 사역을 담당하는 자들에게 가지 않고,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에게 판단하도록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일들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깨닫지도 못하니,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바드 대학에서 교육받지 않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모든 원어를 알고 수년간의 신학대학 공부는 했지만 거듭나지 않은 어떤 교수보다도 영적인 일들에는 더 나은 선생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는 영적인 이해를 갖게 됩니다.

헬라어에 *ginosko* 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경험으로 알거나 공부하므로 알게 되는 것을 말하고, 또 다른 헬라어 *eido* 라는 단어는 직감으로 아는 것, 성령으로부터 오는 직관이나 지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경험을 통한 지식이나 연구를 통한 지식, 즉 *ginosko* 만 갖고 있는 사람은 성경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이해할 수도, 또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성경말씀에 대한 올바른 인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주 이런 “학자”들에 대하여 말하는데, 이런 학자들은 복음서의 어느 문구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어떤 것들이 가짜이거나 복음서 저자들에게 의해 첨가된 것인지 모아서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그들의 이름 뒤에 학위들을 달고 있지만, 그들은 중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결론들을 전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본문을 단지 비판적인 분석만 할뿐이며,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심지어 고등학교 교육도 받지 않았지만 성경말씀을 공부하고, 성령 안에서 행하고,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연인이 가르치는 신학교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진리의 범위를 넓혀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송사할 일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가장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그로하여금 판단케 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5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법정으로 가지고 가다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주의 일들을 믿지 않는 자들의 법정에 드러낸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질문하기를,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몸된 교회 안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도 없습니까? 이런 문제를 형제들 사이에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한 사람도 없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는 기독교인 중재자가 있습니다. 기독교인 중재를 위한 변호사 그룹이 있어서, 만약 해결할 수 없는 일이 형제들 사이에 생기면, 법정으로 가지고 가지 않고 이 변호사들이 문제를 듣고 중재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법정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환경 속에서 그들의 다른 견해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꾸짖으며 말하기를, **6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7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전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것이 믿지 아니하는 법정으로 갖고 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8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앞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음행의 문제를 다룰 때, 11절에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람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나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른 형제를 속이고 사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에는 매우 소름끼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른 형제를 속이고 사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사취하는 사람들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돈이 관련되었을 때, 사람들은 빠르게 그들의 영성과 헌신을 잃어버리고, 욕심이 그렇게 쉽사리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비극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토색(강탈)과 속이는 일들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단지 사업 명함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표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말고 올바른 판단력을 가져야합니다. 현명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를 이용하십시오 라고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주여! 주여! 하거나, 하나님이 형제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며, 또 당신을 위해 기꺼이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계약서를 작성하고, 지혜롭게 하십시오. 항상 그리스도인들을 속이기 쉬운

사람으로 여기고 이용을 하거나 이용을 하려고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뢰하라고 배워 왔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속이기 쉬운 대상으로 봅니다. 이러한 일들을 들어내 놓았어야 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문제를 제기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세대에 걸쳐 있을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계속 말하기를, **9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10도적이거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속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면서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면, 단지 교회에 잘 다니는 것으로 당신의 죄가 덮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속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음행 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당신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대치하는 다른 것이 있거나, 혼외정사의 관계, 즉 간음하거나, 탐색하거나 (헬라어로 여자의 역할을 하는 동성 매춘부), 남색하거나 (헬라어로 동성연애자 또는 남자의 역할을 하는 동성 매춘부), 도둑이거나, 탐욕이 많거나, 술 취하거나, 욕설을 일삼는 사람이라면, 속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을 때, 그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그들을 권고했습니다(에베소서 5:2).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하니라. 또 음탕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성도에게 합당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를 표하라.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 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성적 순수성의 뜻에서),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이런 문제로 미혹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도 거의 많은 같은 것들을 말하면서, 누구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괜찮아, 일단 한번 거듭났으면 괜찮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 누구든지 이런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 땅 위에 임하는 이유입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음이니, 만일 그 심판이 우리에게서부터 먼저 시작되면, 죄인과 경건치 아니한 자가 어디 서리요? 라고 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하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고, 또 그는 이런 일로 누구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인들에게 쓰면서 속지 말라고 합니다. 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도, 5장17절에 갈라디아인들에게 말하기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역시 성적 불순을 의미)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오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다시 한 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될 것에 대해 교회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또 6장 7절에서 그는 말하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란이나, 우상 숭배나, 욕설, 즉 말로 사람들을 갈라놓거나, 말로 사람들의 명성을 파괴하며, 자신들이 하고싶은 대로하며 살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속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이러한 일들로 인해 세상에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임하실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것들에 대해 말하면서 11절에서 말하기를, **11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과거의 삶 속에는 더럽고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씻음을** 받았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이사야 1:18)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사람을 모든 죄로부터 씻어 깨끗하게 하십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으나, 깨끗이 씻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 중생의 씻음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한 것은,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전 생활, 즉 옛 삶의 것들로부터 구별 되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여 졌습니다. 우리는 옛 것으로부터 구별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거룩함을 얻다는 말은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성막을 만들었을 때, 성막에서 사용되었던 기구들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성막에서 제사드릴 때 쓰였던 그 기구들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 있었는데, 그 기구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것으로 구별되었고, 그것을 어떤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어서는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거룩히 구별되어졌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이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육신 전체에 걸쳐 독점적인 권리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졌습니다.

그것보다 더,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이전에 유죄했던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무죄하다는 선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았을 때 행했던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부터 깨끗케 해 주셨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으며, 우리를 모든 죄과로부터 무죄라 선언하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언하기를, **12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율법의 끝이십니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선생이었습니다. 율법은 불법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며 산다면, 육신의 노예, 즉 그전에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었던 것들로부터 그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나에게서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목적과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구별되어져서, 전적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육신은 이제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 분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모든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지 않았다면, 율법은 아직도 당신 위에 지배하고 있으며, 당신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올 때에만 당신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나를 사형으로 정죄했던 율법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 안에 이제 새로운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리스도에게로 올 때까지는 아직도 율법 아래 메어 있어서 그는 율법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러나 일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갖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나는 이제 더 높은 기준을 갖고 있기에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새 생명으로 인한 나의 소망과 목적과 취지는 이 경주를 달리고 이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24절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 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1-2절에서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고 했습니다. 경주를 할 때에, 이기려고 경주하십시오.

그러므로 어떤 행위가 나에게 합당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해도 괜찮은지를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일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지만, 만약 그러한 일들을 한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해도 괜찮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목표를 향한 당신의 진보에 방해가 되지는 않습니까? 나는 풋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갑니다. 내가 이 목표를 향해 쫓아갈 때에 나의 진보를 방해할 어떤 것도 나는 원치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올림픽에서 100미터 달리기를 하는데 선수로 나와서 발판에 뭘 자세를 취할 때, 크고 무거운 장화를 신고 나왔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아마도 그 생각은 맞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무거운 장화를 신고는 경주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들은 방해물이 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경주에서 당신이 이루려하는 승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용납되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것들은 당신이 경주를 달리는데 방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자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큰 자유를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자유를 의미합니다! 적어도 자유에 관해서는 그것보다 더한 자유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므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때 우리의 육신과 육적인 욕망에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일들을 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 자신을 미워하지만, 그것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한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함이로다! 나는 그들이 증오하는 활동에 속박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과 말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고 육신의 힘 때문에 얼마나 좌절감을 느끼는 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며 외쳤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아직도 육적인 욕망과 충동에 묶여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며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신 밖에서 오는 힘을 발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생명과 새 삶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육신의 종노릇에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해방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 영광스러운 자유와 해방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나의 육신과 육적 욕망의 노예가 되거나 지배되지 않습니다. 나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의 자유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면으로 다시금 그 자신을 속박 아래 놓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자유를 사용하여 담배 피우기를 원하여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내가 니코틴에 중독이 되면, 나는 더 이상 자유하지 못하고, 이제 나는 이 작은 담배에 노예가 됩니다. 내가 나의 자유를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여 나를 다시 종노릇하게 한다면, 그것은 지혜롭지가 않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완전한 자유를 가졌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만 제외하고, 그도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었습니다. 그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지만, 단 그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너는 종이되고, 네가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동산 모퉁이에 묶어 놓은 것도 아니고 그 나무 주위에 높은 담을 세우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그것을 먹을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자유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사망을 가져오게 하고 죄와 육신에게 종노릇하도록, 그렇게 그의 자유를 사용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보다 육체의 욕망을 따랐을 때, 그는 그의 육신의 피해자가 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즐길 것이고, 나를 지배아래 있게 하는 어떤 활동에 나 자신을 참여시키거나 받아드리게 하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단 어떤 종류의 활동에 지배받게 되면, 나는 더 이상 자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13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이것은 아마도 고린도에 있는 속담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세상적인 속담으로 그들은 말하기를, 음식은 배를 위해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사실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해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있기에 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것에 반응하기를, **하나님이 이것 저것 다 폐하시리라** 합니다. 이런 먹고 하는 것들은 단지 일시적인 일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이제 **몸은**, 그는 말하기를, **음란을 위하지 않고** (그들은 아마도 그 속담을 육체적 음란에까지 비추어 사용한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하자면, 하나님께서 정력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성적충동을 창조하셨으며, 음식은 배를 위해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내 몸에 성적 기관들을 창조하셨으므로 이것들은 성행위를 위함이라고 하며 이 속담을 음란의 영역에까지 이끌어 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몸은 음란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런 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성적 능력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몸은)**오직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14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부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 몸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몸은 이제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다시 살리신 것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15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특별히 지체, 즉 그리스도의 몸의 부분들이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의 지체를 불의를 위한 도구로 내어주지 말고,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그 말은 당신의 몸,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 양도해드리고, 당신의 성욕을 만족시키는데 내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 내 몸은 그리스도의 한 지체입니다. 내 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주님을 위한 도구로 내 몸을 드러야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인, 이 몸을 가지고 나가서 창기와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16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인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인 이 지체를 가지고 창기 혹은 매춘부와 연합하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 관계 안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둘이 하나가 되는 이런 성적 연합에 관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바로 충격,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이런 관계 안에서 연합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17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므로 **18음행을 피하라.** 우리가 도덕적 순결한 삶을 살려고 마음에 결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그는 왕의 음식으로나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그의 몸을 더럽히지 않으리라고 그의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걱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결코 하지 않으리라고 내가 나의 마음의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마음의 결심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결코 음행을 범하지 않으리라! 당신이 결심해야할 때는 당신 앞에 벌거벗은 여자가 서 있을 때, 할까? 말까? 하며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은 이미 오래 전에 했어야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면, 할까? 말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미리 결정된 일입니다. 내가 왕의 음식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리라고 결심하고, 내가 음란을 범치 않으리라고 결심합니다. 이런 것들은 오래 전에 미리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나의 몸에 관한 이러한 것은 우리의 전체 사고과정의 한 부분이 되어야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사용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몸을 더럽히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종류의 경건치 않은 관계로 그리스도를 데려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우리는 구약에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가 그의 마음을 어떻게 확고히 하고 결심했는지를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내가 어찌 이런 일을 행하리이까? 다른 사람들은 할지 몰라도, 어찌 내가 할 수 있던 말인가? 나는 하나님께 속한 특별한 사람이고, 내 몸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에, 어찌 이런 악을 행하겠는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요셉을 잡고 강제로 침대로 끌고 가려 했지만 요셉은 도망갔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썼습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이것은 몸 밖에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이것은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나? 그것을 볼 수 없느냐? 고 합니다. **19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이제 성령의 전이고,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물,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순절날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였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에 의해 그들의 마음이 찢려 들어가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실수해서,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말하길, 너희가 회개하고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내 몸이니까 내가 하고싶은 대로 나는 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날 임신 중절 합법화 지지자들이 하는 소리들이 아닙니까? 내 몸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글썄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사실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몸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구속함을 받았으며, 값을 치르고 산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때 육체의 욕심에 사로잡힌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분 자신의 피로 우리를 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길 잃고, 노예 되었던 상태에서 구속하셔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20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이것으로 인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살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의 권리를 양도했습니다. 주님은 파멸과, 죽음과, 비참함과 방종의 옛 삶으로부터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고,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가운데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신중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있음을 인식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몸은 이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의 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나의 의무요 나의 책임입니다.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그의 몸 안에서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것이 그의 간절한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만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사는 목적이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몸 안에서 사는 동안, 나는 이 몸에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각자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 진리로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 자기 기만에 대하여 성경말씀에 반복하여 경고되어 있는 것처럼 행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여겨지므로 우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행하며, 우리 몸은 주님께서 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것을 인식하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립니다. 그것이 거룩하고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